

Studies in Theology

Vol. I

Table of Contents

Forward Sang Dong Han, D. D.
 President of Korea Theological Seminary

The Primitive History in the Book of Genesis
 Ban Sik Hong, Ph. D.
 Professor of Old Testament

The Social Life of the Hebrews
 P. S. Oh, Th. D.
 Professor of Biblical Theology

The Necessity of Calvinistic Theology
 Kum Sam Lee, Th. D.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WHAT Is Myth Theodore Hard, Th. M.
 Assistant Professor of Theology

Proofreader H. K. Shin

Published by
 Korea Theological Seminary
 Pusan, Korea

李 勇 元

神 學 研 究

第 一 輯

神
學
研
究

∧
第
一
輯
∨

高
麗
神
學
校
發
行

高麗神學校 發行

神學研究

第一輯

高麗神學校 發行

序 文

保守主義 神學 論文集이 나온다는 것은 教界에 기쁜 소식이요, 神學界에 있어서도 값진 業績이 아닐 수 없다. 自由主義 神學 書籍들이 氾濫한 이 땅의 教界 出版界에 이 한 권의 論文集은 분명히 이 땅에 保守主義 神學이 살아 있다는 生命의 躍動을 또한번 보여 주는 動機가 되는 것이다.

巷間에서는 왜 保守主義 神學者들은 글을 쓰지 못하는가 고 비난 하는 듯한 푸념을 터트린다는 소리를 듣는다. 기실 保守主義 神學者들이 글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쓰지 않는 바도 아니다. 다만 陳腐한 이 땅의 出版界가 그들의 글을 容納해 주지 않기 때문에 책으로 出刊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나라 수 많은 出版社는 保守主義 神學者들의 글을 讀者가 적다는 理由로 出版을 해 주지 않는다. 保守主義 神學者들의 글을 읽어 줄 讀者가 적다니 무슨 말인가? 그 理由를 그들은 두 가지로 말 한다.

첫째는 글을 읽는 사람은 自由主義 진영 사람들 뿐이고 保守진영 사람들은 통히 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自由主義 神學者들의 글은 思想에 變遷이 많고 색다른 思想이 계속 展開되기 때문에 時代感覺에 맞아서 讀者들에게 호감을 주지만 保守主義 神學者들의 글은 聖經 中心에서 떠나지 않으려 애쓰므로 새로운 思想도 새로운 思考도 없이 時代에 뒤떨어진 소리들만 하기 때문에 讀者들을 많이 얻지 못 한다고 말 한다.

우리는 위의 말들에서 생각할 問題가 있다고 기억한다.

첫째, 保守主義 진영 사람들은 왜 글을 읽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심각 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반성할 바라고 본다.

그 時代를 살아갈려면 그 時代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自由主

義와 新神學을 대항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들의 信仰 思想을 몰라가지고야 되겠는가? 그들의 信仰 思想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글도 많이 읽어야 하겠다. 그리고 保守主義 神學者들의 글이면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學者들이 글을 쓰는 데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도우는 의미에서 그들의 책을 많이 사서 소개도 하며 읽어야 할 것이다.

물론, 保守主義 神學者들의 글은 聖經中心이라니 얼마나 든든한 말인가? 새로운 思想, 새로운 思考가 없어도 좋다. 時代에 뒤떨어졌다 해도 좋다. 聖經 中心이면 全部인 것이다. 事故는 새로운 思想을 찾는 데서 일어난다. 하나님은 人生을 대하실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同一한 方法으로 대하신다. 原始時代 人生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石器時代에도 鐵器時代에도 심지어 宇宙時代에 살고 있는 現代人에게도 同一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변한 것은 人生이요, 妖邪스러운 것이 人生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不變하신 것이다. 이 不變하신 하나님의 眞理를 변화되어 가는 人生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만이 保守主義 神學者들의 使命이기에 그 領域을 벗어 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저런 여러가지 意味에서 今般 우리 神學校 教授들의 論文集이 나가게 되는 것은 뜻있는 일이다. 이제 남은 問題는 이 책을 많은 讀者들이 사서 읽어주는 일이다 책은 읽히기 위해서 出版이 되는 것이지 出版되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出版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나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苦心을 했다. 영영 出刊되지 못할 것 같기도 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出刊하게 되니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 책이 出版되는 것을 契機로 계속 第2卷 第3卷이 나갈 수 있기를 또한 期待해 본다. 끝으로 이 論文集이 나오기 까지 여러 가지로 協調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래분들께 감사하는 바이다.

高麗神學校

1969年 12月13日

校長 韓 尙 東

— 목 차 —

서 론 신학박사 한상동 (1)
 창세기의 원시 역사 철학박사 홍반식 (7)

서 론

- I. 천지 창조
- II. 홍수
- III. 人種分布와 列國의 始作

히브리 사람들의 사회생활 신학박사 오병세 (51)

- I. 社會 一員으로서의 人間
- II. 社會의 怪異한 事件들

개혁주의 기독교 철학의 필요성 ... 신학박사 이근삼 (71)

- I. 문제 점
- II. 哲學과 宗教
- III. 哲學과 一般 信者
- IV. 哲學과 聖經
- V. 哲學과 日常經驗
- VI. 哲學의 出發點과 그 方向
- VII. 哲學과 實在의 意義 性格
- VIII. 哲學에 있어서의 反位

NHAF IS MYTH 신학박사 하도례 (101)

창세기의 原始歷史

철학박사 홍 반 식

〈목 차〉

서 론

I. 천지 창조

II. 홍 수

III. 人種分布와 列國의 始作

서 론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생활의 正確無誤한 법칙이라고 믿어 왔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성경의 信任性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이나 질문이 있을 수 없었다. 근대에 와서 자연과학 또는 인문학이 발달됨에 따라 인간은 자기의 理性을 사물의 최고 판단자로 내세우고 모든 일을 과학의 입증을 통한 主觀的 經驗에 依하여서만이 비로소 肯定하려는 경향으로 기울어졌다. 이러한 인간의 사고방식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체계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던지게 되었으니 즉 자유주의 신학사상, 또는 고등비평 등이 발전하여 기독교 신앙의 超自然的 要素를 부정하고 성경의 역사적 요소를不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등이다. 인간이 理性, 또는 科學至上主義로써 기독교를 대할 때 제일 먼저 그 試驗臺에 오르게 되는 것이 성경이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선입관념을 떠나서 인간이 돌이나 나무 같은 일반적인 사고대상을 대하듯 성경을 대하고 취급할 때 비로소 성경에 대한 正當한 認識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¹⁾. 다시 말하면 성경도

1) Herbert Hahn, Old Testament in Modern Research p. 2.

認識의 최고 판단자인 인간 앞에는 다른 모든 사물과 같이 인식에 필요한 분해와 鑑定을 받아야 하며 과학적인 實驗臺를 통과하여야만 성경의 眞價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서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볼트만(Rudolf Bultmann) 같은 사람은 성경에 인간이성과 조화되지 않은 모든 요소는 모두 神話的 性格을 띤 것이니 이런 요소를 除去할 때에 성경이 본래의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²⁾.

이렇게 인간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한 때 기독교 신앙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듯 했다. 그들은 창세기 초두의 설명된 천지 창조와 인류의 원시 역사를 근거없는 寓話 또는 神話로 취급하며, 구약에 나타난 풍부한 역사적인 기사를 부인하려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발전하는 과학은 성경연구에 재미있는 증거를 제공해 준다. 晚近 100년 어간에 발달된 考古學을 통하여 얻어진 중동 아시아의 고대 문명은 성경의 풍부한 배경을 보여 주며 구약의 역사적인 요소를 입증해 준다. 考古學이 성경의 眞實性을 立證한다는 것은 성경에 역사적인 사실이 너무나 많다는 까닭이다. 구약에 기록된 풍부한 역사적 기사 중에는 이스라엘이 그 이웃 나라들과 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굉장히 많다. 한 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러한 史記들은 근거없는 造話로만 여기려는 노력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 얻어진 고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 앗수리, 바벨론, 모압 또는 가나안 諸國의 고대 역사는 성경에서 언급된 많은 地名, 人名, 事件 등을 증거 해 준다는 것이다. 물론 성경은 성경자체가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오 獨自의 信任性을 가지기 때문에 그 누구의 증거를 통해서 비로소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과학이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훌륭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 그 증거를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基盤의 도리를 설명하는 창세기 초두의 기사는 현대 과학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니 이를 현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2) Keryzma and Myth, also F. Gogarten Demythologizing and History

것은 뜻 깊은 일인 줄 안다.

I.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천지 창조와 인류의 원시사가 사람이 만든 전설이나? 또는 역사적인 실화로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정확무오한 말씀이나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어 내었다. 기독교의 오랜 전통은 이 기사들을 틀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왔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 것도 없었던 가운데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며 그 가운데 인간을 위시한 만물을 만드사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어 온 것으로 믿어 왔던 것이다. 우주의 기원과 인생의 작에 대한 사상은 인간의 사고 대상으로서 너무나 깊고 오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흔히 논의되는 문제이다.

고대 철학에서는³⁾ 물질과 신을 共히 영원한 것으로 믿는 二元論을 말하였으며 또는 물질이 신에게서 流出되었다고 생각하였다. 流出說은 신과 물질을 同一視하는 것인데 만물을 초월한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학설인 것이다. 중국철학의 근본사상인 周易에서도 우주의 근원을 流出說에 다 둔다. 周易에서는 陰과 陽의 세력이 機械的으로 配合進展하여서 현상세계의 만물이 생산된 것으로 주장한다. 이것은 物質自然發生說이며 일종의 무신론이라 할 것이다.

좀 더 근대에 이르러 다윈이 주창한 進化論⁴⁾이 現물질 세계의 從屬의인 창조론으로서 한 때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進化論의 큰 원리는 適者生存과 自然淘汰인데 이 두 가지 작용으로 인하여 현상세계가 점진적으로 변화 형성한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進化論도 物質永遠說 또는 物質自然發生說로서 창조론이라고는 불

3) Plato, Aristotle, Gnostics, Manichaeans

4) C. Darwin, Origin of Species

수 없다. 진화론이 한 때 세상을 놀라게 하는 듯 했으나 그것이 잘못된 학설이라는 것은 실험에 依하여 증명되었으며 많은 과학자들이 물질의 자연발생이라든가 種의 변화같은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증하였다⁵⁾.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창세기 초두의 기사가 모세의 글이 아니라 후시대의 글이며 역사적 근거가 없는 傳說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말하는 창세기 초두의 기사가 근거 없는 실화이든지 역사적인 실화이든지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기독교 신앙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주와 인간의 기원이야 어떻든, 신약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박애주의만 배워 이 세상에서 실천할 때에 기독교의 신앙이념은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인생이 당면한 중대 문제의 하나인 우주와 인류의 기원의 지식을 무시하는 것인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기반이 되는 요소를 무시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고 있다. 만일 창세기 처음 부분에 쓰여진 천지 창조와 인간의 범죄 타락이 근거없는 神話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구원관이나 인생관은 전연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초래케 한 인간의 타락이 근거없는 막연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도 그 意義가 희미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 아담, 인류의 시조는 또 한 사람 예수님의 표상이라 했고,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죽음이 온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의 순종으로 인간에게 생명과 義가 이르게 되었다고 증거한다(롬 5:12-21). 창세기 초두의 기사를 역사적 실화로서 신앙할 근거에 대하여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러한 노력은 성경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신앙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를 모세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해도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사업을 目擊한 바도 아니요, 인간으로서는 그

5) Sir Oliver Lodge, Evolution and Creation; Vernon Kellogg, Evolution the way of Man Floyd Hamilton, The Basis of Evolutionary Faith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사업에 證參한 자는 없는 것이니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창조를 時空界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事行으로 믿을 수 있을까? 신앙의 窮極의인 근거는 성경의 권위를 신앙하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啓示인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도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그 전부에 있어서 하나님의 靈感으로 된 글이요(렘후 3:15) 하나님께서 자기 事行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으므로(시 103:7) 그 계시하신 말씀이 우리 신앙의 유일하고 틀림이 없는 표준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는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초자연적인 도리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많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 이성에는 이해되지 않는 점도 많은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역사가 현상 세계의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서를 현대 과학과 지식을 통하여 연구함도 성경을 믿는 자의 義務인 동시에 또한 신앙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1. 천지 창조의 시기

천지 창조의 시기를 測定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대 과학에서 주장하는 물질의 연령을 천지 창조의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측정하는 물질들의 연령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일 것이다. 현대 과학에서 물질의 연령을 측정하는 것은 물질의 시작이 있다는 것으로써 성경의 창조론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지구의 연령에 대하여는 정확한 표시를 피하는 과학자도 적지 않으나 地質學의 化石(fossil)이나 火熱이 식어서 陸地, 바다, 大氣層이 이루어 졌다고 한다⁶⁾. 그리고 지구의 연령은 40~50억년쯤 되었다고 한다. 하바드 대학의 바아그론

6) B. Ramm.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 p. 171.

(Barghrn)교수와 위수콘신 대학의 테일러(Taylor)교수 등은 海藻(algae)와 버섯(fungi)의 化石으로서 20억년 이상이나 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과학자들이 천지 창조를 믿든 안 믿든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구의 연령은 적어도 수십억년 이상이라는 말로 볼 수 있다. 한편 성경 학자들은 창세기의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천지 창조의 시기를 측정하는데 이 측정은 성경 주석학에 따라서 일자가 달라 진다. 보수주의 신학자 롯셀(B. Russell)이나 오수본(H. F. Osborn) 같은 사람은 창조가 4004 B.C.에 이루어 졌다고 했다. 이들의 주장은 아일랜드의 오샤 감독(Irish man. Archbishop of Armagh. James Ussher)의 학설에 근거를 둔 것이다. 오샤씨는 창세기에 나타난 系譜와 그의 성경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재료를 참작하여 A가 B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으며, B는 C를 낳은 후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는 등의 기사를 如字의으로 이해하고 천지 창조에 나타나는 7일의 날들을 24시간의 날들로 계산하여 창조의 시일을 측정 한 것이다. 그는 천지 창조가 아담 창조 보다 5일 앞선 것으로 추산하여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를 4036년으로 계산하였다. 영국 캠브릿지 대학의 히브리어 교수였던 라이트풋(Lightfoot)박사는 오샤씨의 주장을 근거로하여 천지 창조는 주전 4004년 10월 18일에서 24일 사이에 이루어 졌으며 아담의 창조는 주전 4004년 10월 23일 오전 9시에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다⁷⁾.

위에서 말한대로 측정한다면 지구의 연령이 60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현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수십억년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학설이 현대 복음주의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1~2에 대한 해석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데 있고 또 창세기 5장과 11장에 표현된 系譜를 연대 측정의 尺度로 삼느냐 안 삼느냐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7) E. T. Brewster, Creation; A History of Non Evolutionary Theories p. 109.

첫째로 학자들 중에는 창세기 5장의 系譜를 연대 측정의 표준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하나님의 인류구속을 위한 選民史의 要人들을 열거한 기사로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만일 창세기 5장의 계보를 연대 측정의 표준으로 삼고 천지 창조가 아담 창조 5일 전에 된 것으로 본다면 창조로부터 노아가 사망한 때까지는 2066년 밖에 되지 않는다. 알리스(Oswald T. Allis) 박사는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과 수명의 기간은 일종의 계보(geneology)로 볼 수 있으나 시대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연대기(chronology)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의 요인들의 수명의 기간은 기록되었으나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연대의 전 길이를 말하는 年數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⁸⁾.

와아필드 박사(Dr. Benjamin B. Warfield)도 성경의 계보는 정확한 연대의 길이를 보여 주기 위한 보다는 要人列擧主義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하였다. 예컨대 마태 1:1~17에 나타난 系譜에는 아하시아, 예호아스, 아마지아 등의 셋 왕이 빠져 있다. 마태 1:8에 요람이 우지아를 낳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요람은 우지아의 고조부이니 그 중간에 3대가 빠진 것이다⁹⁾.

省略的 系譜는 구약에도 나타난다. 에스라 7장의 계보는 간추린 형태로 된 것이요, 그와 같은 계보가 대상 6장 이하에는 좀더 상세하게 취급되어 있다. 창세기 11:26에 의하면 테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테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테라의 壽命의 전 길이가 70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창세기 11:26에는 테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생산하였더니 이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창세기 11:32, 12:14, 사도행전 7:4 등을 종합해 보면 테라가 205세 때

8) God Spake by Moses p. 22.

9) Benjamin B. Warfield, Stupies in Tqeology, article "On the Antiquity and Unity of the Human R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2, pp, 235~258.

하란에서 사망하고 아버지의 사후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는데, 그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라고 한다. 행 7:4의 “그 아비가 죽으매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옮기다”란 말은 정확한 기간을 측정할 재료가 되지 못하나 테라가 죽은 후 즉시로 떠났다고 생각한다면 테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는 나이 130세쯤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간 창세기 11:26의 70세란 말은 테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의 나이로 보기 보다는 차라리 테라가 자녀를 생산하기 시작한 때의 나이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아일란드의 으샤 감독과 같이 창세기에 나타난 系譜에 依하여 천지 창조가 주전 4004년에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은 건전한 성경 주석학에 근거를 둔 학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로 천지 창조의 날들, 을을 긴 시대들로 보는 학설이 있다

즉 천지 창조에 언급된 일곱날, 을이 24시간의 날이 아니라 측정할 수 없는 긴 일곱시대이니 천지 창조가 주전 4004년에 되었다는 학설을 피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주후 1세기에 생존했던 유대인 歷史家 요세보(Josephus)가 주장했고 기독교 초대 교부들이 지지 했으며 오리게네(3세기) 여거스틴(Augustin, 4세기) 등도 추종했다. 이 교부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했으며, 현대 어떤 학자들의 말과 같이 창세기의 날들을 긴 시대로 보고, 이 오랜 시대를 통하여 만물이 진화 발전했다는 학설과는 같지 않았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현대 학자들 중에도 천지 창조의 을이 時代일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는 사람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7시대에 진화했다는 사상은 반대한다. 을 진화설에 의하면 현대 지질학에서 주장하는 지구의 연령과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학설이 당하게 되는 난관도 적지 않다. 히브리어의 날, 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창세기 7:4~12에 의하면 을은 낮, 즉 밤, 라엘라의 對句로서 사용된 것이니 24시간 안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복귀이나 남극에서 수개월이나 계속되는 밤이나 낮이 있을 수 있음은 사실이나 창세기 7장에 나타나는 을은 24시간에 지나가는 밤과 낮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출애굽 20:3~11에 의하면 을은 24시간의 한 날을 의미한다. 그러니 여기 말한 을은 라엘라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잠언 25:13, 창세기 30:14, 여호수아 3:15, 민수기 13:20 등에는 을이 시대 혹은 시절 또는 때로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취할 수 있는 근거로 을이란 말이 단수 또는 복수로 나타나는 것에 의할 수도 있고, 이 단어가 나타나는 그 문맥의 전체적 의미에서 좌우되는 수도 있다. 그런데 천지 창조에 나타난 을은 그 문맥 전체를 자세히 살필 때 정상적인 하루 이의 다른 해석을 취할만한 요소를 보이지 않는다¹⁰⁾. 창조의 을들은 분명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을 하나가 이루어 졌다는 문맥으로 정상적인 하루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옛세의 을들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제 7일, 샤바트와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 즉 하나님이 쉬신 샤바트 제 7일은 일곱 을의 7분의 1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출애굽 20:11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샤바트가 24시간의 하루임이 틀림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에 쓰신 을들은 긴 시대들이고 마지막에 쉬신 샤바트는 24시간의 하루라고 한다면 안식일 제정의 의의가 불분명하며 창조 기사의 해석상 약간 부자연스러움을 볼 수 있다.

세째로 창세기 1:1과 1:2 하반 이하 사이에 측정할 수 없는 무제한의 오랜 기간이 있다는 학설이 있다. 이 학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하셨는데 천사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혼돈하여지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1:1)은 완전하고 아름다우며,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천지였으나 천사가 범죄하여 마귀로 타락 고되 아름다운 세상은 파괴되어 혼돈된 천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10) Harry Rimmer, Modern Science and the Genesis Records, 1967. pp. 12~21.

천사의 범죄 타락은 벨후 2:4, 유다 6, 이사야 14:12~14 등에 다 근거를 둔다. 이 혼돈과 흑암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창조로써 질서를 바로 잡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1:2에 말한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한 것으로서 다시 1:3에 “빛이 있으라”하시고 이어서 옛세 동안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학설에서는 창세기 1:5 이하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용들을 24시간의 날들로 해석하지만 1:1절의 처음 창조와 1:2 후반 이하의 새 창조 사이에는 측량키 어려운 긴 시대가 들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학설은 지구의 연령에다 무제한적인 세월을 부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의 연령과 부합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현대 복음주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학설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19세기 초에 George H. Pember씨가 그의 저서(Earth's Earliest Ages)를 통하여 이 학설, 중간시대 개입설(Gaptheory)을 세상에 넓게 소개했다. 저명한 신학자 헨스터버그(Henstereberg 1802~1869) 또는 벨리취(Ernst Delitzsch, 1813~1890) 등이 이 학설을 지지했고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이 학설의 지지자가 더러 있다¹¹⁾.

네째로 위에서 말한 중간시대 개입학설과 비슷한 학설이 있으니, 즉 창세기 1:1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란 말과 1:3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6일간의 창조를 시작하신 때와의 사이에 알 수 없는 긴 시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위에 말한 학설과 비슷하지만 1:1의 창조가 완전 하였는데 천사의 범죄로 세상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 창조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한 날이 우리의 천년 같고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와도 같은(벨후 3:8) 것이라 했으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다시 옛세 동안의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까지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사실에 있어서 셋째와 네째의 학설은 서로 비슷한

11) The Interpretation of Genesis 1:2, in Westminster Theologica Journal xxII May 1961, pp. 151~178.

것으로 별다른 구분을 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창세기 1:1과 1:3 사이에 긴 시대가 있었다 할 수 있다는 학자들 중에는 천지의 파괴와 재창조도 믿지 않는 학자가 현대에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위에 말한 몇몇 가지 학설을 통하여 지구의 연령을 생각할 때 천지 창조가 주전 4004년에 이루어 졌다는 학설은 건전한 근거 위에 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지구의 연령이 30억년 혹은 50억년 된다는 학설들도 액면 그대로 받아 드리기에는 부자연스러움이 너무 많다. 하여간 천지 창조는 주전 4004년 보다는 훨씬 오래된 것으로 현재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측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창조 기사의 唯一性

고대 철학이나 이방 종교에서 우주의 기원설을 말하는 수가 없지 않다. 이러한 세속 문학에서 말하는 천지의 기원은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창조론이 되지 못한다. 이들은 주로 신과 물질을 모두 영원으로 보는 二元論이거나, 물질이 神에게서 流出되었다거나 또는 물질의 직화론 등이다. 성서의 창조 기사는 그 特異性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써 천지를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서 既存의 물질을 사용함이 없이 있게 하신 즉 無에서 有의 창조(Creatio ex nihilo)인 것이다. 성서에 나타나는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주로 빠라, 야찰, 아사 등인데 창세기 1:26~27, 2:7에는 이런 動詞들이 混用되어 있다.

창세기 1:1에 나타난 천지 창조의 대 선언에는 빠라란 동사가 사용되었다. 야찰이나 아사는 既存의 물질로서 무엇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빠라는 그 주어가 하나님일 때에는 一般的으로 既存의 물질로서 이루어지는 改造나 製作을 의미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다는 동사로 사용되었다.

① 창세기 1:1~3의 해석

창세기 1:1에 대한 전통적인 번역과 해설은 “태초에(부레쉬이

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되어 있다. 여기 브레쉬이드란 말이 중요한 이유는 無始無終하신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의 차이를 들어내는 동시에 물질의 시작을 점치는 한 시점을 표시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最古의 역문인 70인 譯에도 이 브레쉬이드를 $\epsilon\upsilon \acute{\alpha}\rho\chi\acute{\eta}$ 라고 했으니 그것은 태초라는 말이고 그의 모든 古代譯文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중세대의 유대인 주석가 이븐 에스라(Aben Ezra), 라쉬(Rash) 등을 위시하여 에발드(Ewald) 같은 학자들이 창세기 1:1~3에 대한 다른 해석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태초, 브레쉬이드와 창조하다 파라란 말을 連繼形으로 보고 하나님 엘로 힘에 연결시킨다.

즉 장엄한 천지 창조의 선언격으로 기록된 1:1을 독립문장으로 취급하지 않고 부사구로 취급하며 그 절은 1절을 형성하는 절로 취급하여 본 문장은 3절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그들은 전통적인 번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다니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를 부인하고 새로운 번역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초 브레쉬이드,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고 번역한다. 이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시초에 벌써 땅이 있었고 그 땅이 혼돈하였으며 공허했다는 뜻을 보인다. 이것은 물질 先在說이니 無에서 有에로의 창조(Creatio ex nihilo)의 사상과 배치되며 異敎에서 말하는 二元論과 동일한 것이 된다. 이들은 레쉬이드를 로쉬에서 온 명사로서 連繼形인 것으로 본 것이다. (창세기 1:1의 브레쉬이드에는 정관사가 없으니 連繼形이며 파라는 부정사 連繼形으로 취급하여 이 두 단어를 하나님, 엘로힘에다 연결시킨다.)

사실상 레쉬이드가 連繼形으로 나타나는 예가 성경에 없지 않다. 창 10:10, 렘 26:1 등에는 레쉬이드가 連繼形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레쉬이드는 독립형으로도 나타나고 있으니 신명기 33:21 이 그 좋은 예이다. 히브리어의 유명한 사전들이 레쉬이드는 독립형과 連繼形이 동일한 모양의 명사로서 취급한다¹²⁾.

이 학설이 문법상으로 전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학설대로 하면 物質先在說이 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문맥상으로도 창세기 1:1을 副詞句로 만들기는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창 1:1의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인데 창세기 초두의 창조기사를 설명하는 34절에 35번이나 나타나며 대략 주어로 나타난다. 창조하다, 파라란 동사는 구약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나타날 때에는 주로 하나님이란 주어와 같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창조를 표시할 때 나타난다.

창세기 1:1을 副詞句로 취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1절과 2절 사이의 와우라 접속사가 들어서 2절에 나오는 문장과 연결시키는 점이다. (1절과 2절) 사이의 접속사는 분명히 독립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절 초두에 나오는 접속사 와우는 단순한 접속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그서는 동사를 거느려 그 동사의 時相을 正反對로 읽게 하는 Waw Consecutive이다. 동사의 時相을 바꾸면서 접속의 역할을 하는 이 와우는 구약에 무수히 나타나는데 거의 전부가 주어와 동사를 가진 절이나 문장 사이에 나타나 동등한 문장들의 연결을 이어주는 동시에 그 문장들이 표현하는 행동의 계속성 또는 진전성을 나타낸다. 우리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으나 창 1:1에서 3절까지 와우 접속사가 일곱번 나타난다. 1절과 2절 사이의 와우도 두 개의 對等關係를 가지는 문장을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3절 초두에 나타나는 와우는 단순한 접속의 역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상의 연결, 또는 진전을 표현하는 접속사인 것이다. 3절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란 문장이 독립적인 성격을 띤 문장이라면 그 앞에 1절과 2절

12) B. D. B. p. 912; Koehler—Baumgartner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p. 867.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였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행하였다”도 3절을 수식하는 종속적인 절로 볼 것이 아니라 3절과 동등한 문장으로 봄이 가할 것이다.

② 바벨론 創造譚

古代 文獻中에서 천지 창조 神話들이 다소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도 수메리안 창조담이나 애굽, 바벨론, 베니게 창조담 등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바벨론 창조 신화는 내용이 풍부하여 성경의 창세기와 유사한 점도 많고 성경의 방언인 히브리어와 바벨론 창조담이 기록된 아카방언(Akkadian)은 서로 同族語인 점에서 유명하며 성경의 創世記事와 함께 바벨론 創世記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고고학자 레이어드(Layard)와 라삼(R-assam) 등이 1850~1854 어간에 고대 앗수리 왕국의 고도 니느웨(Nineveh)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아술반이팔 왕(Ashurbanipal)의 도서관을 발견하고 많은 土書板을 얻었다. 이 고대 문서 중에 그 유명한 바벨론 창세 신화(Enu-ma elish)가 들어 있었다. 바벨론 창조담은 일곱 土板에 새겨 졌는데 楔形文字體로 된 아카 문학인 것이다. 제일 土板 처음을 읽어 본다면 “enu-ma elish la-nabushamamu shaplish ammatum shuma la zakrat”이란 말로서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높은 곳에서 하늘이 이름으로 불리워지지 않았고 낮은 곳에서 땅이 이름으로 불리워지지 않았을 때”이다. 그래서 바벨론 창조담의 명칭이 그 土板 맨 처음 말을 따서 enu-ma elish 이니 “높은 곳에서……때에”란 뜻이다. 바벨론 창조담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천지 형성 시초에 천지의 母體인 혼돈의 女神 티아맛(Tiamat)의 그의 남편 水神 압수(Apsu)가 있다. 女神 티아맛은 자기의 세력이 남편을 지배하게 되자 남편 압수를 추방하고 킹구(Kingu)를 남편으로 삼았다. 그들 사이에 자녀로서 라카무(Lachamu)와 라크무(Lachmu)를 위시한 많은 신들이 출생되었다. 신들이 천지가 혼돈의 수신이 되어 있음을 불만하여 신들의 합동회의를 열었다.

신들의 회의에서 결의된 대로 천지가 혼돈이 되어 무질서 하니 질서확립을 위하여 티아맛 女神에게 提案하였다. 그러나 티아맛은 자기의 지위가 바뀌어짐을 원치 않고 혼돈의 수신으로 그대로 있겠다는 것을 주장하여 신들 회의의 결의를 거절하였다. 신들은 다시 회의를 열고 연회를 베풀어 술로서 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 다음 말둑(Marduk)이란 신을 내세워 그의 위대성과 권위를 일정한 다음 말둑신으로 하여금 혼돈의 水神 티아맛과 대결하여 세계의 질서를 확립해 달라는 결의를 하게 된다. 제4 토판에는 이 용감한 말둑신이 혼돈의 女神 티아맛과 대결하는 격투가 상세히 記載되어 있다. 말둑은 태양신으로서 전신에 빛나는 광채로 옷 입고 활로서 무장하였다.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강한 바람을 모아 티아맛에게 바람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화가 난 티아맛은 말둑을 향하여 저주를 발하고 그를 삼키려 입을 크게 벌리고 덤벼 들었다. 이 때 말둑은 강한 바람을 티아맛의 입으로 쏘아 넣어 內腸이 바람으로 가득차게 하여 입을 닫지 못 하도록 하고는 입으로 활을 쏘아서 창자가 찢어져 죽게 한다. 그리고는 죽은 티아맛을 둘로 쪼개어 한 쪽으로 땅이 되게 하고 다른 한 쪽으로 하늘이 되게 한다. 제5 토판과 6 토판에는 그 큰 싸움의 뒷 처리가 나오며 제7 토판에는 모든 신들이 모여 승전의 용사인 말둑신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 맺었다. 바벨론 창조담의 楔形文字 원본의 사본 판과 음역 및 번역은 많은 文獻들을 통해서 전해 졌다. 그 가운데 요긴한 문헌은 P. Antonius Deimel, Enu-ma Elish, sive Epos Babylonicum de Creatione Mundi; S. Langdon, The Babylonian Epic of Creation; L. W. King, The Seven Tablets of Creation; Aloys Kirchner, Die Babylonische Kosmogonie und der biblische Schöpfungsbericht; P. Jensen, Assyrisch-babylonische Mythen und Epen; Alexander Heidel, The Babylonian Genesis 등이다.

바벨론 창조담을 성경 창세기사와 비교할 때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 성경에서 창조의 때를 표시하는 브레쉬이드, 태초가 언급된 것처럼 바벨론 신화에도 에누마 엘쉬쉬(enu-ma elish) 높은 데

서.....때에 라는 때를 말한다. 물론 브레쉬이드와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른 것이니 양자가 모두 천지 창조를 기준으로 한 때를 말하는 것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자가 모두 창조 시초의 천지의 혼돈을 말한다. 성경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다고 함과 같이 바벨론 기사에 있는 티아맛(Tiamat)이란 것은 그 자체가 천지의 모체로서 혼돈의 水神이다. 클레이(A. T. Clay)박사는 창세기 1:2의 깊음, 테흠을 바벨론 기사의 티아맛(Tiamat)과 同義語로 본다. 테흠은 깊음이니 원시시대의 바다이요, Tiamat는 바벨론語 tamtum(바다)에서 유래했을 뿐 아니라 Tiamat는 혼돈의 水神이란 점에서 서로 통하는 때가 있다고 한다. 스미드(George Smith) 역시 테흠과 티아맛을 同義語로 취급한다, (Chaldean Account of Genesis P. 60). 양자가 모두 혼돈에서 질서의 세계로 전진하는 순서를 보인다. 성경에는 인간창조가 제 6일에 있었고 바벨론 기사에는 인간창조가 여섯째 토판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유사점 등을 근거로 하여 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의 창세기가 바벨론 신화에서 取材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짐머런(Heinrich Zimmeren)교수는 『바벨론 창세기와 히브리 창세기 (The Babelonian and Hebrew Genesis)』란 저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창세기는 바벨론 창세기에서 유래하며 그것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현재의 성경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델릿취(Friedrich Delitzsch)씨도 Bibel und Babel(英文版 Chicago, 1906)이란 저서를 통하여 성경의 사어와 사상에 대한 바벨론 신화 유래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점은 유사점 보다 더 많으며 내용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전연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다수의 차이점은 양자가 문서적 상통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불신학자들도 범바벨론 학설(Pan Babylonian Theory)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양자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첫째, 성경에는 유일신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엄격한 창조 기사가 기록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예배와 순종을 독점하시는 장엄한 기사로 나타나지만, 에누마 엘리쉬는 질서를 잃은 다신(多神) 세계에서 벌어지는 신들의 유치한 작난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말독신이 티아맛의 몸을 양단하여 하늘과 땅을 만든다 함은 신화 고유의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에히”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둘째, 유출설과 창조설의 대립이다. 바벨론 창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혼돈의 水神인 티아맛을 개조하여 천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한 순수한 창조다. 티아맛 그 자체가 천지의 모체요 또한 거기서 신들이 산출되었으니 이것은 유출설이다. 성경에는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분이 분명하다. 셋째, 성경에는 유일신 하나님의 엄존하신 창조자로서의 자격과 사역이 시종 여일하게 지속되는 반면 바벨론 기사에는 잡신들의 정치적 권력 투쟁이 표면화되어 나타난다. 형태가 진정됨에 따라 주도권이 한 신으로부터 다른 신에게로 이양되는 것이 드러난다. 처음에 일을 시작한 신들은 물러가고 말독신이 사역과 영광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류의 권력 쟁탈이 반영된 신화의 일면이다. 넷째, 말독 자신이 태양으로서 밤과 낮이나 시절을 제정할 수 없음에 반하여 성경에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태양과 발광체를 조화있게 제정하여 해, 시절, 날 등을 制定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사상과 종교적인 내용에서 양자가 현저하게 각이한 문서인 것을 드러내고 있으나 양자 사이에 후종의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히브리語와 바벨론語는 다같은 셈족 방언이요, 성경과 바벨론 창세 신화가 모두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고 지적되는 중동 아세아에서 작성 되었으며 성경의 창세기와 바벨론 창조담이 기록된 시기가 다 같이 오래된 점 등은 양자가 후종의 관련을 가질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사가 바벨론 신화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학설은 양자

간의 내용의 근본적인 차이와 바벨론의 저열한 다신론 사상에 정 반대 되는 성서의 유일신 사상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성서 비평학의 거두인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 역시 성서의 유일신 사상은 바벨론 유래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인하였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양자가 동일한 사건에 근거를 두었다는 동일 근원설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¹³⁾.

동일 근원설은 바벨론 유래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바벨론 유래설은 성경기사를 바벨론 신화의 산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 근원설은 성서와 바벨론 신화와의 縱的 關聯을 인정치 않는다. 즉 창세기시의 母體가 되는 역사적 사실과 성경 그리고 바벨론 창조담이 삼각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서도 동일 근원설을 지지하는 자가 적지 않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위대한 창조의 사실이 성경에는 성신의 敎道와 영감으로 유일신의 창조 역사 그대로 기록·전승되었고,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실이 그들의 다신론적인 종교 사상대로 訛傳되어 유치하고 부도덕한 신화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바벨론 창조담은 사실에 있어서 천지 창조 기사가 아니고 물질선재설과 유출설을 결합한 천지의 시작을 말해 보는 신화이다. 그러므로 바벨론 창조담이나 천지의 시작을 말하는 다른 신화들도 창세기사에 대한 성경의 유일성을 침범치 못한다. 하여간 인류의 最古文明인 바벨론의 고대문학이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를 보여 줌은 태초에 유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재미있는 일이며 성서 연구에 참고 재료가 되는 것이다.

3. 현상세계와 창조관

신앙의 세계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

13) A. T. Cllay, Light on the old Testament from Babel; Ira m. Price The Monuments and the Old Testament; J. A. David, Genesis and the Semitic Tradition

님의 대속의 죽음을 신앙하는 것처럼 천지 창조에 대하여도 성경이 말하는대로 신앙할 때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며 창조에 대한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도 아무 부족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상세계에 나타난 제반 도리가 천지 창조를 증거할 때 그것을 저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기본 표준이 특수 계시인 성경이었으나 특수 계시에 대한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 계시 즉 현상세계를 연구하는 것도 성경을 신앙하는 자의 할 일이라고 본다.

① 세계는 계획에 의한 산물

인간세계에서 쉽사리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거기에 질서와 조직적인 작용이 있을 때엔 그 배후에 지적·이성적 존재의 작용이 개재한다는 사실이다. 아름다운 그림, 정리된 정원, 웅장한 건물, 복잡한 인쇄기 등은 모두 세밀한 계획과 공장의 노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단순한 물질의 集積體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에나 질서, 조화, 목적의 작용이 표현되어 있다. 천체의 무수한 별들의 층돌 없는 움직임, 태양계의 惑星들의 회전, 특히 지구, 달의 움직임으로 되어 지는 시절의 변화와 干滿의 時를 어기지 않는 潮水 등을 생각할 때 도저히 우연히 이루어진 일로는 볼 수 없다. 생물의 세계에서 계획에 의한 구조를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水生鳥類는 긴 다리와 목을 가짐으로 居動採食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고 나무에 서식하는 새들은 힘 있는 날개와 짧은 발에 힘 있고 예리한 발톱이 있어 樹木生活에 적당하다. 草食動物이 큰 위장을 가지고 있고 육식동물이 빠른 속력과 예리한 발톱을 가지고 있는 등의 차이점은 실로 재미있는 조화인 것이다. 무생물은 식물의 생장·번식을 도와 주고 식물은 동물의 영양이 되는 오묘한 관계는 우연한 산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메이슨(Francis Mason)교수는 그의 저서 The Great Design: Order and Progress in the Nature를 통하여 현상세계의 질서정연한 계획성 있는 구조는 지성적 창조자의 사행임을 증거한다고 말하였다. 글라스고우(Glasgow)대학의

천문학 교수 스마트(W. M. Smart)박사는 우주의 신비는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이며 우주를 연구하려면 더욱 창조의 위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¹⁴⁾.

② 우주의 유한성

현대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가운데 하나는 현상세계 물질의 연령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지구 표면의 最古層에 속하는 岩石은 24억년쯤 된 것이고 운석(Meteorite)은 50억년쯤 된 것이라고 한다. 달이 지구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중인데 그 본래의 위치에 움직이기 시작한 때는 적어도 수십억년 전일 것이라고 말한다, 하늘에 散在한 星團도 그 본래의 위치에서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데 그 본래의 위치는 3~40억년 전에 있었으리라고 하며 팔로마 산(Mt. Palona)에 설치된 200인치 망원경은 최근 연구에 의하여 지구의 연령이 적어도 55억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주에 표현된 熱力學的 법칙은 우주의 열의 역할이 한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의 연령 측정을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연령 측정은 물질의 기원이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물질의 종말이 있다는 결론을 자아내는 것으로 성경의 천지 창조설과 부합하는 점이 없지 않다. 현대의 저명한 학자들도 이 우주의 유한성을 식인한다¹⁵⁾.

II. 홍 수 (창세기 6~8)

노아 홍수는 천지 창조 以後 인간이 역사를 만들기 시작한 以來 人間界에서 일어난 가장 크고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것이다.

타락하여 범죄 악화 일로에로 들어 가는 인간 사회에 홍수로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간

14) The Origin of the Earth p. 335.

15) J. E. Booclin, Cosmic Evolution; F. S. C. Northrop, Science and First Principles; James Jeans, The Mysterious Universe; A. S. Eddington. The Nature of the Physical Word.

섭하시고 人生은 自然界를 支配하시는 統治의 神이심을 증거한다. 홍수에 멸망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만을 구원하신 것은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主權으로 이루어진다는 귀한 敎訓을 주는 것이다. 이 사건이 人類의 歷史的, 또 구속적인 立場에서 실로 중대한 敎訓을 보여 주는 것인 바 성신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신약의 著者들도 이 사건을 이 宇宙萬物에 對한 하나님의 주재권과 인류 구속 역사의 進行을 보여주는 중대한 敎훈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마24:37, 눅 17:26, 히브리 11:7, 벨전 3:20, 벨후 2:5)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중요한 敎훈을 주는 홍수기사는 天地創造 기사와 함께 불신앙적인 批評家들의 강한 비평을 받아 왔으며 現代科學의 銳利한 비판을 받아 왔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친 자유주의 비평학자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 궁켈(Hermann Gunkel), 그레스만(Hugo Gessmann) 등은 노아 홍수 기사를 천지 창조 기사와 함께 바벨론 신화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역사성을 부인하였다. 이들은 오경의 많은 부분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감화를 받고 그 감화를 충분히 살렸다고 말한다. 특히 노아 홍수는 바벨론 홍수기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⁶⁾.

실지어 독일 신학자 프레리히 델릿츠(Friedrich Delitzsch)는 구약의 기사 가운데서 바벨론 문학사상 혹은 宗教思想의 反映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에 발달되어 가는 科學이나 晚近 수십년 동안에 얻어진 중동아세아의 古代文書는 聖書의 原始歷史들의 진실성을 증거하고 창조 기사와 아울러 홍수 기사의 역사적 배경과도 조화하는 재료를 제공하여 주게 된다.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아득한 옛날에 이 지구상에는 상당히

16) William L. Wardle, Israel and Babylon; Leonard W. King, History of Balyon; Hermann Gunkel, Die Religinsgeschichte und die Alltes tamentliche Wissenschaft.

범위가 컸던 홍수가 있었다고 말한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홍수가 창세기 6~8장에서 말하는 그 홍수(하마블), 즉 노아 홍수나 아니냐가 문제인 것이다.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洪水와 성경의 洪水는 그 때와 범위에 있어서 조화된다고 보기에 난관이 있고 意見이 승致되지 않는다. 福音主義 학자들 사이에서도 노아 洪水의 時間에 대한 여러 가지 學說이 있다. 제임스 으샤(James Ussher)는 창세기 5장의 기사와 성경 系譜를 如字的으로 해석하여 노아 홍수를 2,348 B. C. 에다 둔다. 알리스(O. T. Allis)는 성경의 系譜가 年代測定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왕왕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등장하는 要人들의 가족적 배경을 주기 위한 것이니 성경의 계보들을 통하여 연대를 측정함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God Spake by Moses P. 22) 엠·에프·영거(M. F. Unger)박사는 창세기 5장과 11장의 계보를 年代記로 취급하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4,000년이나 현대 考古學的 증거에 의하면 고대의 정착되었던 사회에서 4,000이 훨씬 넘는 질그릇 문화가 발견되었으니 아담의 시대를 4,000 B. C. 에 국한시킬 수 없는 일이며 노아 홍수도 사실 4,000 B. C. 보다는 오래 전에 된 일이라고 말한다.¹⁷⁾

베르나드 램(Bernard Ramm)박사는 만일 노아 홍수가 우주적이라면 적어도 10,000 B. C. 이전에 된 일일 것이니 그 이유는 현 북미주 대륙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 인디안이 8,000~10,000 B. C. 에 벌써 그곳에 거주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말 하였다.¹⁸⁾

1.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이다.

창세기 6~8장에 나타난 홍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事行으로서 인류가 부패하여 극히 악하여 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전 인류를 다 멸하신 것이다. 이 기사는 홍수가 전 세상을 덮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는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이라

17) Introductory Gnide to the Old Testament p. 194.

18) The Christion View of Science and Scriptnre p. 336.

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라는 말은 하마불이니 “그 홍수”란 말이다. 성경에 하마불이란 말이 홍수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는 오로지 노아 홍수 즉 大洪水에만 使用되었다.

시 29:10에도 하마불이 나타난다. 그러나 거기에는 象徵的 意味에서 사용된 단어이고 地上의 홍수를 의미하는 用語는 아니다.

게세니우스나 랑에(Geenius. Lange)같은 학자는 마불이 야발이란 히브리어 동사의 Hiphil形이라 보고 그 뜻을 “가져 온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야발은 구약에서 언제나 히필형으로 나타나는데 뜻은 “가져 오다”란 것이며 아라비아어 동사 제 1형의 와발라나 아캇語 G형의 “와발롬” 등이 모두 同意語로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舊約의 유대인 성서학자 이븐 예즈라(Iben Ezra)는 야발동사를 나발에서 온 것으로 말하는데 나발의 뜻은 “떨어 지다”, “파괴하다” 등이 있다.

예즈라가 마불의 근원을 나발에다 두는 것은 마불, 홍수를 통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었으니 야발=가져 오다의 뜻 보다는 나발=파괴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가 더욱 조화를 이룬다고 했다

그래서 마불의 베이드 안에 따게쉬(dagesh)를 눈의 생략된 표시로 보고 마불의 원형은 만불이라고 한다. 그는 또 말하기를 만일 마불이 야발에서 왔다면 페 요드(Pe Yod) 동사가 히필형(Hiphil)이 될 때 요오드(Yodda)가 와우로 변하는 원리에서 마불은 모발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학자는 발랄, “혼돈케 하다”란 말에서 왔다고 주장한다. 발랄에서 온 명사는 본래 마불인데 베이드 안에 있는 따게쉬가 첫째 라에드를 생략한 표시로서 결국 마불이 된 것이라고 한다. 발랄이란 말을 根源으로 보는 학자는 노아 홍수로 인하여 질서있던 生命의 世界가 전부 파괴되고 혼돈 천지로 변하였으니 야발, “가져 오다”란 동사 보다는 발랄, “혼돈케 하다”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해석은 마불이 야발 “가져 오다”란 동사에서 온 것으로 보는 학설이다. 그렇다면 홍수는 自然的으로 온 것이라기 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게 한 것이니 “가져 온 것”이란 명사가 뜻이 깊다

① 창세기 7:19~20의 증거

이 귀절은 성서의 홍수가 전 세계적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물이 더욱 땅에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덮혔더니” “여기 높은 산들이란 방주가 닿았던 아라랏 산맥을 말하는듯 한데 이러한 높은 산들이 완전히 물에 잠긴다면 그 홍수는 전 지구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다」란 말은 콜인데 혹은 모든 것 전부 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라랏 산과 같은 高峯中에 하나만 물에 잠긴다 해도 그 홍수는 전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고 했는데 여기 15규빗은 어느 수심을 말하는 것인가? 이 15규빗(22 Feet)을 홍수의 전 수심으로 볼 수는 없다. 또는 산 꼭지에서 물이 15규빗 솟아 올랐다는 말로도 볼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홍수전 모든 산들의 높이가 같아야 될 테니 가능한 해석은 방주의 밑 水高를 가르키는 말로 보는 것이다. 방주의 全高가 30규빗이니(6:15) 짐을 실은 방주가 물 위에서 절반은 물에 잠긴 셈이 된다. 방주가 물에 잠긴 것이 15규빗이니, 홍수는 산꼭대기에서 적어도 15규빗 이상의 수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런고로 이 귀절들은 세계 홍수설을 표현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② 물의 출처

창세기 7:11에 의하면 홍수가 시작하던 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였다는데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한다.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대량의 폭우가 나린 것을 의미한다. 여기 비란 말은 계샘인데 주로 심하게 내리는 소낙비를 가르키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내리는 비를 표시하는 마달이란 단어와는 좀 다른 것이다.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진 것은 降雨로 인한 수량 보다도 더 많은 물이 움직여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큰 깊음은 테홀라바인데, B. D. B. 에 의하면 深淵 또는 原始의 바다 등으로 말하고 Koehler, Baumgartner도 原始의 바다, 地下水源 등으로 말하고 또는 Ugar-

itic 문서의 Thm에다 연결시켜 海水란 뜻도 있다고 말한다. 많은 자들이 테홀라바를 창세기 1:2의 테홀 “깊음”에다 연결시킨다. 창세기 1:2의 테홀은 원시적 水體로서의 바다와 地下水源을 意味하는 바 이것이 洪水時에 폭발되어 지구를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增水의 형태는 海溢하는 것과 같았을 수도 있고 대량의 물이 솟아 오른 것 같기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생각할 때 노아 홍수 때에 지구가 지리적으로 큰 변동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격동하는 물의 힘이 땅을 휩쓴 다음에는 있던 골짜기도 메워지고 없던 언덕도 있게 되었을 것이다. 에스겔 3:15의 텔 아비브가 아칼어의 TIL ABUBI와 같은 말인데 뜻은 홍수의 언덕이란 것이다. 즉 없던 언덕이 홍수가 지난 후 생겨난 것을 의미한다. 보통 홍수라도 그 범위가 크고 수량의 움직임이 강할 때 지형이 변한다. 노아 홍수시에는 지리를 변동시킬만한 강한 물의 움직임이 하루나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고 5개월간 계속한 사실이다. 7:11에 보면 홍수가 시작되는 날 깊은 샘들이 터지고 7:24에는 그 물이 150일간 땅에 창일하였으며 8:2에 의하면 홍수가 창일한 지 150일 이후에 깊은 샘들이 막혔다고 말한다. 천지 창조 이후 최대의 지형적 혼돈이 5개월간 계속하고 모든 산들이 잠기는 이 홍수를 중동 아시아에 국한된 지방적 홍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③ 방 주

노아 홍수에 있어서 방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방주는 神學的으로 풍부한 教訓을 줄 뿐아니라 노아 홍수의 歷史的 要素를 보여 주기도 한다. 창세기 6:15에 방주의 規格이 기록되었는데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다. 이 規格에 宗하면 방주는 航海를 爲하여 만든 배라기 보다는 그저 물위에 떠 있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만들어진 배라 할 것이다. 규빗은 히브리어로 “아마”란 말인데 “아마”의 길이는 코대 근동 지방에서 나라에 따라 달랐다. 애굽 나라의 한 규빗은 20.65인치와 17.6인치의 두 종류가 있었고 바벨론의 한 규빗은 19.8

인치이며, 히브리인의 한 규빗은 20.4인치(에스겔 40:5) 등으로 되어 있었다. 표준 규빗으로 계산한다면 방주의 길이가 437.5피트이고 넓이가 72.92피트이며 높이가 43.75피트이다. 내부가 3층으로 되었으니(창세기 6:16) 화물 積載가 便利하며 약 43,000噸의 貨物을 취급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방주는 現代 大規模의 遠洋船舶 보다는 좀 작으나 상당히 컸던 것만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방주를 노아에게 짓도록 명하였고(6:13~16)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다고 말한다. (6:22) 그러나 여기 노아가 누구와 방주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이 거대한 방주를 노아 혼자서 만들었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노아는 이 거대한 방주를 짓기 위하여 자기 식구들을 총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용할 수 있었던 造船 技術者들의 상당한 수를 동원했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일이 얼마란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으나 창세기 6:3에 依하면 홍수 예언으로부터 홍수의 시작까지가 120년 간이라고 되어 있으니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들게 한 意義는 무엇일까? 방주는 神學的으로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겠으나 요긴한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홍수 당시에 방주에 든 자만이 구원을 얻은 것같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教訓을 준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방주는 홍수의 범위가 전 世界的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어떤 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노아 홍수가 당시 인류 문화 생활의 中心地였던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를 중심한 地方的인 홍수였다면 이러한 거대한 방주의 건조는 效果的인 피란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 거대한 방주를 건조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다른 地方으로 避難을 가도록 하였을 것이다. 노아 홍수가 單純히 한 地方에 局限된 것이었더라면 그 수 많은 生物을 배에다 실어서 수교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건조를 命한 것은 노아와 그 가족을 홍수

에서 구출할 目的이었고(히브리 11:7), 각종 짐승을 압, 수 짝을 지어 방주에 들이게 한 것은 모든 짐승이 地上에서 종자를 保存하기 위한 것이다(창 7:3).

④ 벨후 3:3~7의 증거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情慾을 좇아 행하며 譏弄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約束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부터 萬物이 처음 創造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成立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同一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看守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保存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귀절들은 우주 홍수설을 증거하는 요긴한 재료이다. 베드로 사도의 이 증거는 宇宙가 自然法則으로 維持되어 온 것같이 앞으로도 그대로 永遠히 계속하리라고 믿는 自然同樣論者(Uniformitarianists)들을 向하여 警告한 말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宇宙는 自然法則 以外에 다른 外部의 간섭으로 심한 變動을 받을 수 없으며 또 自然法則 그 自體에도 별다른 法則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니 이 宇宙에 激한 變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自然同樣論者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天地 創造를 序論的으로 말하고 그 創造된 宇宙의 二大劇의 變動을 力說함으로써 그들을 警告하였다. 이 물질 세계의 가장 큰 파괴는 두 번인데 하나는 물로서 파괴한 노아 홍수로서 벌써 지나간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 끝 날의 파괴이니 즉 심판 날에 이 세상이 불사름으로 파괴될 것이다. 이 두 사건을 對照的으로 말한 것은 注目할만 한 일이다. 6~7절에 그 때 있던 세상, 코스모스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 당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된다고 한다. 물로서 멸망 당한 코스모스도 전 세계를 가르키는 것이며 불사름으로 멸망할 하늘과 땅도 전 세계를 가르킨다.

여기 “물로서 멸망하다”는 동사는 아폴루미(ἀπόλλυμι)에서 온 것이며 물로서 멸망될 것이라는 명사, 아포올레이아(ἀπόλλεια) 역시 아폴루미란 동사에서 온 것이다. 아폴루미란 동사의 뜻은 一般的으로 “파괴하다”라고 하겠으나 보다는 철저한 파괴를 의미하는 말로서 [to bring to nought]라고 볼 수 있다. 홍수를(우주의 최종 파괴에다 對照시켜 말한 것이라든가 아폴루미란 강한 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홍수가 메소포타미아 地域에만 있었던 地方的 홍수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에 말한 聖句중에 「그 때 있었던 세상」과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의 對句는 洪水以前 지구의 형태와 洪水以後 지금의 지구 형태가 달라진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홍수로 인하여 지구에 심한 파괴를 가져 왔을 뿐 아니라 地形 등 其他 모든 분야에 심한 변동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⑤ 노아 가족을 제외한 人類 全滅

성경은 분명히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家族 以外的 모든 인간이 다 멸망 당한 것으로 말한다(창 7:20~24). 홍수의 目的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 이외의 전 인류를 멸하는 것이었다(창 6:11~13). 이 인종 전멸의 原因은 그들의 罪惡으로 인함이다. 洪水以前 人類의 罪惡이 극도로 惡化되었다는 증거는 성경에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창세기 6:1~6, 11~13, 눅 17:26~27, 벨전 3:20, 벨후 2:5, 유다 14:15, 예수님의 敎訓에 對의 처가 멸망 당한 일(눅 17:32)과 요나가 코기 뱃속에서 3晝夜를 고생한 일(마12:40) 등을 들어서 하나님의 죄악을 향한 진노에 대하여 敎訓하는중 특히 눅 17장에는 홍수와 인류 멸망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셨다. 창세기 9장에 나타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약 역시 우주 홍수설을 증거한다. 노아는 이 때 인류의 代表者로서 인류 전체의 통솔자로서 하나님의 계약을 받은 것이다. 만일 그 때 노아가 죽 이외 다른 인간이 지구에 살아 있었다면 창세기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약과 축복은 그 意義가 희미한 것이다. 미국 휘이튼 대학의 삼으엘 술프(Samuel Schultz)교수는 “내가 다시는 물로서

인류를 멸절하지 아니 하리라”란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게 세 번 언급 되었는데(창 8:21, 9:11~15)이 계약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다시 말하기를 만일 이 계약을 받는 對象이 노아 가족 이외에 더 있었다고 한다면 노아 홍수는 人種의 部分的 멸절을 意味한다. “내가 다시는 물로서 人類를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인류 전멸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면 창세기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約束은 거짓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이유는 노아 홍수以後 現在까지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시대를 통하여 무수한 홍수 사건으로 生命을 잃은 자들이 부지기수인 까닭이다. 여기 말한 모든 生物의 멸망은(창 6:11) 분명히 노아 홍수 때 되어진 전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生物의 멸망을 뜻하는 말이다. 노아 홍수以後 오늘날까지 홍수로 인하여 전 인류가 멸망 당한 일은 없었으며, 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물로서 이 세상을 멸하실 때까지는 홍수로서 전 인류가 멸망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 지방 홍수설

不信 科學者나 自由主義 神學者들은 성경의 홍수기를 근거없는 神話로 보거나 또는 옛날 中東아시아 地方에 상당히 큰 범위의 홍수가 있었던 것을 과장하여 후대에 聖書 著者が 說話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한다. 복음주의 학자들은 一般的으로 노아 홍수의 범위를 성경이 提示하는대로 전 세계적인 것으로 믿으며 그 홍수의 性格이 범죄한 人類를 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라고 신앙한다. 그러나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서도 노아 홍수가 반드시 우주적이었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사람도 있다. 베르나드 램(Bernard Ramm)박사는 “地方 洪水說을 主張한다고 해서 성서의 靈感도 그러나 하나님의 全能性을 不信하는 자라고 斷定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위에서 언급한 그의 著書 P. 240). 램박사는 노아 홍수기의 진실성을 신앙하는 사람이지만 그 홍수가 우주적이었던 것을 反對한다. 그는 홍수가 人類의 발상지인 中東아시아에서

일어났던 地域의인 事件으로 본다. 地方 洪水說의 根據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우주에 전 지구를 덮을 만한 水量이 없다는 것.

大氣중에 있는 水分이 전부 지구에 쏟아져도 지구 전부를 덮으면 그 깊이가 7인치 밖에 되지 않으며 현재 세계의 高峰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을 물로서 덮으려면 海拔 6마일 높이의 水量이 필요할 것인즉 이러한 물이 있을 수 없으며, 어디서 오겠느냐 하는 것이다. 성경에 노아 홍수 때 물이 하늘에서 내린 비만으로 되어졌다고 하지 않고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알 수 없는 많은 양의 물이 홍수를 이룬 原因으로 말한다. 현재 히말라야 산과 같은 높은 산들이 홍수 전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홍수를 통하여 이 지구 전체에 비상한 변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海水와 淡水가 混合 되었으면 水中에 棲息하는 生物이 죽었을 터인데 그러한 기사가 성서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에 海水와 淡水가 完全히 혼합되었다고 단정키 어려우며 水中의 많은 生物들이 바다물에서도 살 수 있고 產卵은 민물에서 하는 수도 있다.

③ 현재에 볼 수 있는 세계의 고봉들을 다 덮으려면 물이 海拔 6마일이나 되었을 텐데 이러한 多量의 물이 바질 곳이 없다는 것인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노아 홍수 때 물의 높이가 海拔 6마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며 홍수 기간 일년 동안에 바람 증발 등으로 물이 줄어 들었을 것이고 그 외에도 地理的인 形편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④ 방주와 짐승

그 많은 짐승이 어떻게 먼 곳에서 방주로 모여 들게 되었으며, 그 짐승들을 방주 안에서 몇몇 사람이 어떻게 371일 간이나 먹여 살렸겠느냐 하는 것을 문제로 하며 짐승들 중에는 사람이 취급하기 곤란한 맹수도 있고 추운 곳에서 사는 짐승과 열대 지방에서

사는 짐승들이 어떻게 방주 안에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며, 또 남부 美州나 오스트랄리아 같이 큰 바다가 가로 놓인 大陸에서 살던 짐승들을 어떻게 소아시아에 있었던 방주가 실게 되었을까, 또 어떤 짐승은 대단히 건조한 곳에서만 살 수 있고 어떤 짐승은 습기가 많아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똑 같은 환경조건의 방주 안에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등을 문제로 삼는다. 이러한 문제를 提示한 사람은 1840년에 스미드(John Pye Smith)¹⁹⁾란 사람이었고 이어서 1870년에 제미슨(Robert Jamieson)²⁰⁾이란 사람이 방주와 동물들의 관계를 들어 우주 홍수설이 不可能함을 주장하였다. 우우드(F. H. Woods)씨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모든 짐승을 노아 방주에 다 실을 수 있었다고 해도 노아 가족 남자 4인과 여자 4인 합해서 8인으로서는 그 많은 짐승에게 사료를 주어서 먹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실로 복잡한 것이며 인간의 지성으로 납득이 될만한 시원한 해답을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홍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地上에서 되어진 사건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科學的 知識으로서도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할 때 홍수에 대한 문제점을 재미있게 분해 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레윅겔(A. M. Rehwinkel)씨는 홍수(The Flood)란 저서를 통하여 홍수 이전에는 현재와 같이 높은 산도 사막도 없었으며 北極이나 南極 같은 酷寒地帶도 없었고 이 세상 기후는 다 같이 溫和하였다고 말하였다. 또 어떤 학자는 홍수 이전에는 半半球의 大陸이 東半球의 大陸과 連結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베테(Bade)씨는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 가장 하루의 급식만 받고 冬眠으로 들어 가서 잠 자다가 홍수가 끝나자 방주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홍수 전의 地理와 洪水後 形편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달라졌다고 하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당히 달라졌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19) The Relation between the Holy Scriptures and Some Parts of Geological Science p. 145.

20) Critical and Experimental Commentary

알라스카와 시베리아 사이에는 본래 육지의 연결이 있었던 흔적이 지금도 인정하는 학자가 없지 않다. 세계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동물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 간 것이 아니고 그 종류의 대표들만이 들어 왔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들이 대부분 그 종류로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지방 근경에 있었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짐승들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다. 氣候鳥의 移動 역시 동물은 지구의 한 부분에서 먼 거리로 조속한 시일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방주에서의 동물에 대한 급식 문제도 해석하기 어려우나 짐승들이 部分的으로 冬眠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짐승이 오랜 기간 동안 食物없이 지나게 되는 일들은 현대에서도 研究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食物채취에 능하도록 되었을 뿐 아니라, 신체의 구조가 食物을 자주 섭취하도록 된 것이다. 그러나 食物채취에 時間的인 精確한 保障이 없는 짐승들은 형편에 따라 食物섭취가 순조롭지 못한 형편에서도 능히 生存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짐승의 세계에서 生存이 어려워 질 때에는 冬眠과 移動이 다 현대 科學에서 動物의 生理學(physiology)과 生態學(ecology) 등에 대하여 상당히 세밀한 研究를 기우림에도 불구하고 生存의 惡條件을 극복하는 짐승의 本能的인 힘과 適應性에 대하여는 明確한 解答를 찾지 못한다²¹⁾.

짐승들이 방주로 나온 것은 自然法則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다. 성경은 노아가 各地方으로 나아가 짐승들을 몰아들인 것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짐승들이 노아에게로 나온 것을 말한다(창 6:20). “짐승들이 네게로 나올 것이요”(야보우 엘레카, 7:9~15)란 말이나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오다”(바우 엘 노아)란 귀절 등은 分明히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것을 보여 준다. 8장 1절에도 하나님

21) H. M. Morris and J. C. Whicomb, The Genesis Flood p. 73.

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식구와 짐승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심을 말한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이루어진 노아 홍수의 歷史性을 현대 과학이 증명함으로 비로소 신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홍수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되어진 이적이려면 自然法則을 전연 무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홍수에 대한 各樣問題點을 科學的인 見地에서 생각해 볼이 뜻 깊은 일이다.

3. 洪水와 地質學

창세기 7:11~12에 “하늘의 창들이 열리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란 句節은 심한 강우를 의미한다. 하야 하계셀은 소낙비가 쏟아진 것을 의미하며 40주야를 쉬지 않고 소낙비가 쏟아진 것을 말한다. 그러면 氣象學으로 볼 때 현재 지구를 둘러싼 구름의 水分으로 40주야의 계속적인 폭우가 가능할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과학에서는 현재 구름 속에 있는 水分으로서는 40주야의 계속적인 폭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40일간 폭우가 계속될 때 태양을 통한 증발이 불가능할 것이니 구름 속에 저장되었던 水分으로서는 不足한 것이다. 지구를 둘러싼 구름에 있는 물을 일시에 땅으로 다 끌어 내려도 땅 전부를 덮으면 그 무게는 겨우 2인치 정도라고 한다(C. S. Fox). 그런고로 40주야의 폭우는 구름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天界에 있던 다른 水量이 땅에 쏟아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학자들 중에는 본래 천체 기상에 큰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 구름외에 천체의 막대한 水量이 노아 홍수시에 땅에 쏟아진 다음 다시 지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학설의 근거는 현재 海洋의 수량이 본래 수량보다 많아졌다는 것인데 본래는 해면도 좁았으며 수량도 적었으나 현재의 바다는 해면도 넓고 수심이 깊다는 것이다. 소위 바다 속의 산(Sea-mounts)이란 것은 본래 물 위에 들어나 있었던 섬들인데 바다의 水量이 많아져서 물밑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이 海底山의 嶺 속에서 陸地

의 動植物의 化石이 많이 發見되어 그 물 속 산들이 본래는 물위에 들어나 있었던 것을 증거한다고 한다²²⁾. 海底峽谷(Submarine Canyons)은 본래 해면이 現在보다 낮았다는 것을 충분히 증거한다. 海底峽谷은 육지의 峽谷 河川과 같은 형상이며 대개 현재 지상에서 흘러 나르는 큰 강 河口 근처에서 바다를 향하여 해저로 깊게 뻗어 있다. 이러한 바다밑 골짜기들은 바다밑 조류로서 된 것이라기 보다는 한 때 지상에서 강한 폭류로서 지어진 것이 해면이 높아짐에 따라 해저에 들어간 것이라고 본다. 해저 골짜기 가운데 유명한 것은 뉴-욕 허드슨강(Hudson River) 하구에서 대서양으로 뻗어나간 것인데 길이는 약 300마일이나 된다고 한다²³⁾

그런데 윌리엄 돈버리(William P. Thornbury) 같은 사람은 그의 저서 지질형태학(Principles of Geomorphology)을 통하여 해저 골짜기들이 지상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는 많은 난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홍수시에 지구 주변의 구름에 함축된 수량이 다른 수원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학설은 창세기 1:7~9과 재미 있는 대조를 보인다. 창 1:7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1:8).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1:9), 그 하늘 아래의 물을 다시 마른 땅과 물로 나누어 지구라고 한 것이다. 여기 하늘 아래와 하늘 위에란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분명하다. 하늘 아래 물은 지구의 모체로서 땅과 바다로 나누어 졌으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하늘 위에 물(하마임 아셀 메알 타라키아)은 무엇이나 하는 것이 재미로운 문제이다. 이것이 구름의 雨水를 말한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창세기 2:6에 의하면 천지 창조후 비가 내리는 기상의 조직적인 제도가 없었고 안개가 땅에서 올라 와서 땅을 적었다고 했다. 그리고 구름은 사실에 있어서 우주적인 전지에서 지구의 일부라

22) Edwin L. Hamilton, The Last Geographic Frontier; The Sea Floor, Scientific Monthly, Vol. 85, December 1957 p. 303.

23) Francis P. Shepard, Submarine Geology pp. 231~233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궁창위의 물은 천계에 있었던 다량의 물이었는데 홍수 때에 지구에 쏟아 졌다가 다시 돌아 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지질 변동설 역시 노아 홍수에 대한 긍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 지층의 化石과 地層의 증거에 의하면 지구 체질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잠작할 수 있다. 지층 폭발이나 지진 등으로 지층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음은 물론이거니와 큰 산들이 솟아 오른 (up lift) 증거들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과학적 증거에 의하면 현재 세계 각지의 높은 산맥들이 본래의 형태 보다 많이 높아 졌다고 한다. 북미 대륙의 태평양 연안의 높은 산맥, 즉 알라스카에서 캘리포르니아 남쪽까지 이르는 산들은 수천피트 높아진 증거가 있고 알프스 히말라야의 高峰은 빙하기 혹은 제3 지층시대에 많이 높아 졌다는 것이 현대 과학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남미 페루 산맥(Peruvian Andes)은 적어도 5000피트가(鮮新期—第一最新世 Post-Pliocenetime) 높아진 것으로 본다. 복음주의 신학에서 보는 홍수의 시대와 이러한 과학적 증거로 홍수시대 측정에 있어서 조화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세계의 높은 산맥들이 그 어떠한 시기에 지질적인 변동으로 높이 솟아 올랐다는 과학적 증거는 노아 홍수의 기사를 如字的으로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재미겨운 참고 재료가 된다. 노아 홍수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문제중 하나는 그 막대한 수량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빠졌느냐 하는 점인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海面이 본래 보다 높아 졌다든가 높은 산들이 본래 보다 솟아 올라서 높아 졌다든가 하는 과학적 증거는 노아 홍수를 역사적인 동시에 우주적인 사실로 신앙하는 자에게 재미로운 지식이 된다²⁴⁾.

化石(Fossilization)에 대한 연구만도 근 수십년동안에 다대한 진전을 보았는데 이 연구도 노아 홍수와의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지질학에서 발견한 여러 종류의 化石은 오래 전에 이 지구상에서

24) R. F. Flint, Glacial Geology and the Pleistocene Epochs, Glacial and Pleistocene Geology

큰 변동이 있었음을 증거한다²⁵⁾. 더우기 지상에 사는 동등들이 병들어 죽어 정상적인 순서로 매장되어서 化石이 되는 길은 드물다고 한다. 그런데 현대 지질학에서 발견한 육지 동물을 포함한 풍부한 化石은 대량의 생물이 갑자기 지하에 매장되었거나 또는 산채 매장된 증거라고 한다. 현대 시베리아 북방에서나 알라스카 등지에서 발견된 짐승의 化石중 그 짐승의 모양이 완전히 보장되었고 털까지 그대로 보장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원시 코끼리(Mammoths)인 바 그 수는 자그만치 5,000,000頭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²⁶⁾.

동물 化石에 있어서 高山地일수록 낮은 곳에는 弱體 동물 금수 등이 있고 인간의 化石은 주로 山頂 근처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흥미있는 일인 것이다. 짐승은 높은데서 살고 인간은 평지에서 사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데 왜 인간의 化石은 높은 곳에서 발견되고 짐승의 것은 낮은데서 발견될까? 想必 이것은 지성적인 인간은 홍수시에 죽음을 피하여 死力を 다해서 높은 곳으로 몰렸고 무지한 동물은 그저 뛰기 쉬운 곳으로 피하다가 죽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높은 산 山頂 근처 동굴 등에서 인간 또는 짐승들의 化石이 集積된 것을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하였다.

4. 길가메쉬 신화

창세기의 원시 역사를 취급함에 있어서 바벨론 창조담이 유력한 연구대상이 되는 동시에 바벨론 홍수기(The Epic of Gilgamesh)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가메쉬 신화중에 나타나는 홍수 이야기는 노아 홍수 기사와 흥미 깊은 대조를 보이기 때문에 성서 연구에 있어서 길가메쉬 신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시카고 대학의 고대 근동문학 교수인 하이델 박사(Alexander Heidel)는 구약성서와 고대 근동문서 사이에

25) William J. Miller.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Geology pp. 11~38.

26) Sir Henry Howorth. The Mammoth. and the Flood pp. 288~291.

가장 意味 깊고 재미있는 類似記事는 성서의 노아 홍수 기사와 길가메쉬 신화에 나타나는 洪水記일 것이라고 말했다²⁷⁾.

길가메쉬 신화는 12토판에 기록된 고대 바빌론어, 그리고 앗수르어 楔形文字體로 된 문서인데 19세기 중엽에 Austen H. Layrd. Homuzd Rassam. George Smith 등에 의하여 앗수르 왕국의 古都 니느웨에서 발견되었다. 內容은 바벨론 신들과 길가메쉬 사이에 되어지는 對話가 中心이다. 길가메쉬는 3분지 1이 사람이고 3분지 2는 신으로서 인간의 죽음이 무엇이며 죽은 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신들과 대화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 11토판에는 홍수 기사로서 유명한 트르나피쉬뫼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방주를 모아 가족과 친척 그리고 짐승들을 홍수로 부터 구출한다. 그런고로 성서 연구에 가장 큰 관심을 일으키는 것은 길가메쉬 신화 12토판 전부가 아니고 홍수 이야기를 실은 제 11토판인 것이다. 이 문서는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에 George Smith. The Chaldean Account of the Deluge; Peter Jensen. Assyrische-Babylonische Mythen und Epen A. Ungad and H. Gressmann. Das Gilgamesh Epos 등에 의하여 출판되었고 그 뒤에 20세기 중엽에 접어 들면서 좀 더 완전한 音譯과 번역문이 나왔²⁸⁾.

현재 이 신화의 楔形文字體 原本과 音譯으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R. Campbell Thompson이 註釋을 곁혀서 1929년에 출판한 The Epic of Gilgamesh이다. 현재 영문 번역으로서 유명한 것은 E. A. Speiser in J. B. 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Alexander Heidel, The Gilgamesh Epic and Old Testament Parallels 등이다.

창세기의 홍수기를 길가메쉬 홍수기와 비교할 때 약간의 유사점을 볼 수 있다. 양기사(兩記事)가 모두 인류의 멸망을 말하고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생명을 건졌다고 한다(창세기 7:21~23,

27) The Gilgamesh Epic and Old Testament Parallel p. 224.

28) Alfert Schott. Das Gilgamesh Epos; G. Contenau, L' Epopée de Gilgamesh

Gilgamesh 11:130~135). 양자가 다 神의 명령에 의하여 방주를 건조한다. 노아는 참신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그 규격대로 지었고(창 6:14~16), 으르나피쉬팀은 바벨론신들, 특히 바벨론 지혜의 신인 에아(Ea)의 명령으로 방주를 지었다. 에아 신의 명령은 “짐을 털어 방주를 만들라”(uqur biti bini elippa). “너의 재물을 버리고 너의 생명을 구하라”(makkura zirna napish ta bullit) “모든 생물과 동물의 종자를 방주 안으로 이끌어 넣어라”(shulima zir naps hati kalima ana libbi elippi) 등등이었다. 양기사에 나타난 방주가 모두 칸을 막았으며 하나의 창문과 하나의 출입구가 있다. 양쪽 다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새어들지 않게 했다고 기록했다. 또 양쪽 방주 모두가 지붕으로 덮여 비를 피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방주에 인간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실었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날린 것같이, 바벨론 방주에서도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렸다고—물론 바벨론 기사에는 노아가 날리지 않은 제비를 날렸지만(150)—했으며 홍수 후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린 기사도 양편에 다 있고, 창세기 9:11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과 같이 바벨론 지혜의 신 에아(Ea)는 전쟁의 신인 엔릴(Enlil)에게 다시는 홍수로서 인간을 멸하지 말 것을 간청했다(11:180 ff). 또 노아 홍수가 인간의 죄악을 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홍수기사 초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같이 바벨론 기사에도 인간의 악이 언급되어 있다(11:184~185).

이렇게 볼 때 양자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겠으나 양자의 차이점은 더욱 현저하다. 창세기에는 유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보냈고 길가메쉬 신화에는 신들이 회의에서 홍수 내릴 것을 결정했다. 이것은 유일신론대 다신론이다.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하여 홍수를 내린 것이 확실하지만 바벨론 기사에는 홍수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고 창세기에는 죄를 벌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 있으나 바벨론 기사에는 상선 벌악의 명확한 구분이 없다. 그러므로 하이델(Heidel)박사는 “성

서의 홍수는 악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보복이지만 바벨론 기사의 홍수로 인한 파괴는 모든 자가 다같이 당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²⁹⁾. 길가메쉬 기사에는 6일 6야로 폭우가 내리다가 제7일에 비가 그쳤고 창세기 7:4에는 40주야를 비가 내렸다고 했다. 노아 방주는 길이가 넓이보다 길고 바벨론 방주는 길이나 넓이가 같다. 노아 방주에는 노아 식구 외에 아무도 없었으나 길가메쉬 방주에는 선장이 따로 있었고,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여 홍수를 그치게 하셨으나(창세기 8:1~2), 길가메쉬에는 신들이 공포와 불안에서 떨고 있으므로 여신이 이쉬타가 기원을 함으로 홍수가 그쳤다. 노아가 홍수 후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다시는 홍수로서 세상을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바벨론 신화에는 으르나피쉬팀이 니칠산정에서 제물을 드리니 바벨론 잠신들이 파티메와 같이 그 제물에 모여 들었고, 홍수 후에 Enlil신과 다른 신들 사이에 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홍수를 보냈다는 것으로 큰 논쟁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인리히 짐머런(Heinrich Zimmern)은 그의 저서 The Babylonian and the Hebrew Genesis를 통하여 성서의 홍수기사가 바벨론 홍수기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짐머런씨의 학설은, 이 두 홍수기사 사이에는 유사점 보다는 차이점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과 특히 바벨론의 다신론적인 유치한 기사와 히브리 성서의 유일신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으로 내리신 홍수의 대조적인 사실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성서의 홍수기사를 역사적으로 믿는 신자가 바벨론 홍수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홍수의 사실이 인류의 고대 문학에 반영된 것은 홍수의 역사성을 더욱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아득한 옛날이 큰 사건, 홍수가 있는 뒤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동안 口傳으로 내려오다가 성경에는 성신의 감동으로 틀

29) The Gilgamesh Epic and the Old Testament Parallels p. 226.

림없이 기록되고 이방 문학에는 그들의 종교, 문화, 사회 생활의 영향으로 와전되어 신화가 되고만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人類分布와 列國의 始作

창세기 10~11장에 기록된 인종의 분포는 인류 원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보여 준다. 홍수 전 인생 창조사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홍수 이후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되는 인종 분포사는 인류 역사의 재출발이요, 세계 각 종족의 출발을 보여 주는 것으로 중요성을 띠는 것이다.

홍수 이후에 시작될 종족과 열국의 정착이, 인류의 창조와 인류 최초의 거주지였던 에덴이 있던 곳으로 짐작되는 메소포타미아 근경 유브라테강 근처에서 이루어진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 근대 과학에서 인류의 발상지에 대한 연구를 취급하는데, 인간의 번식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시작을 과학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의 발상지는 인류문명이 시작된 곳과 같은 것인데 인류發祥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학자에 따라서 인류의 발상지를 애급, 메소포타미아, 중국 등으로 지적하는 학설이 있으나 근대 고고학에 의하면 인류의 最古文明이 메소포타미아, 유브라테 강변에서 시작된 것을 주장하는 학자가 적지 않다. 이것은 성경에서 인간의 원시 역사가 중동 아세아, 유브라테 강 근처에서 시작된 것을 나타내는 사실과 부합하는 일로서 뜻 깊은 학설이다. 고고학의 권위자인 윌리엄·오오브라이트 박사는 지중해 동편 비옥한 평지 즉 유브라테 강 근처의 신알 편지를 인류의 발상지라고 주장했다. “고고학적 연구는 고대성과 행동성을 겸한 인류문명의 발상지로서는 지중해 동해안 및 그 동방의 비옥한 평지 이외 그것을 겨룰 만한 다른 곳이 없다는 것을 거의 의심할 여지없이 증거하였다.”(From Stone Age to Christianity P. 6)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유브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으로 인해서 침식되어 내려오는 흙으로 덮여 있어

토질이 비옥하여 농지로서 적당하다고 한다. 이 지방의 최초의 주민으로 생각되는 것은 수메리안족(Sumerians)인데 3000 B. C. 에 이곳에 정착하여 문서, 농업, 상업, 도시, 건설, 율법제정 등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다. 메소포타미아 평지에서 5~6천년 된 수메리안 민족의 고대 문명이 최근 수십년 동안에 많이 발굴되었다. 그 중에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발굴대에 의하여 얻은 토판문서와 고대 수메리안 문명의 유물들은 유명하며 현재 필라델피아 시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의 관장이며 펜실베니아 대학의 선행학 교수였던 사무엘·크레이머(Samuel N. Kramer)박사는 이 수메리안 문명을 인류 최초의 문명인 동시에 최초로 가장 고도의 발달을 가졌던 문명이라고 말했다³⁰⁾.

오오브라이트(William F. Albright)박사가 인류문명의 발상지로서 말하는 지중해 동방 평야라든가 크레이머 박사가 말하는 인류의 최초 문명을 만들어 낸 수메리안 민족이 살던 지방이 모두 다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 이후 인류문명의 출발지인 신알 평지와 부합하니 대단히 재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학자들 중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니느웨 근처에서 유사이전 신석기 시대의 동린(Neolithic Villages)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 지방에서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한 증거가 5000 B. C.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³¹⁾.

또 해리슨 박사(R. K. Harrison)는 북 메소포타미아 지방 즉 앗수르 상부 지역에서 정착된 신석기 시대의 문명은 아마도 5000 B. C. 이전으로 올라 갈 것이라고 말한다³²⁾(A. History of Old Testament Times P. 24). 하여간 현대 과학이 말하는 인류의 最古文明의 흔적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 또는 홍수 후에 노아

30) The Sumerians, in Scientific American, October 1957, pp. 70~83

31) Seton Lloyd and Fuad Safar in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Vol. 10, 1945, pp. 255~289; M. E. L. Mallowan in Annals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20, 1933, pp. 127~177; E. A. Speiser, in Asia 38, 1938, p. 543

32) A. History of Old Testament Times p. 24.

의 가족으로 재출발한 인간의 원시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라고 짐작되는 유브라테 강을 낀 메소포타미아 평야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재미있는 증거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자손들로 부터 시작되는 각 족속의 판도는 현대 인종학에서 요긴하게 취급하는 자료이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후손의 분포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함의 후손, 마지막에 함의 후손 즉 장자의 후손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런 순서는 창세기에서 족보의 系列을 말할 때 중요하지 않은 가족의 족보를 먼저 말하고 要人 系統의 系譜를 맨 나중에 말하는 원리와 相通한다. 야벳 族은 一名 북방 족속이라고 불리었는데 본래 코카서스(Caucasus)지방 즉 黑海와 裏海(Caspian Sea) 중간에 군거(群居)하다가 점차적으로 동서방으로 분산되었는데 특히 서부 유유럽으로 진출한 족속이다. 이 족속이 인도 게르만족(Indo-Germanic) 혹은 인구족(Indo European)의 조상이 된 것이다. 창세기 10:5의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란 말은 如字的으로 “이들로부터 그 이방 나라들의 섬들과 그들의 땅으로 나뉘어져”라고 번역할 수 있다.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섬들(이일)은 거의 전부가 지중해 연안에 散在한 섬들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특히 소아시아에서 서반야에 이르기까지의 구라파 해안의 섬들을 의미한다³³⁾. 그러므로 창세기 10:5은 야벳족속이 구라파 족속의 조상인 것을 증거한다고 볼 수 있다. 창세기 10:6~14에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의 분포를 설명한다. 함의 자손은 동남방 족속이라고도 불리었는데 본래 메소포타미아 지방 남부에 거주하다가 그 후 남방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애굽, 가나안 등의 지방으로 이주하여 큰 족속을 이룬 것이다. 함의 자손이 부분적으로 아랍 족속과의 조상적인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함족은 아프리카의 흑인 선조로 생각된다. 역사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제국주의 왕국을 건설한 족속이 함족이라 하며 바벨론의 니므로드 왕국(Nimurod)의 통치,

33) Keil and Delitzsch. Biblical Commentary on the Pentateuch p. 164

아술(Asshur)이나 니느웨(Nineveh) 그리고 이집트 등의 제왕국들이 모두 함족속이 건설한 제국들이라고 한다. 창세기 10:21~30에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자손의 분포를 말한다. 셈국은 서남아시아에 집단적으로 거주했으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타우루스(Taurus), 알메니아(Armenia) 또는 이란(Iran) 근경으로 퍼져 중동 아시아 전역에 편만하게 된 족속이다. 셈족은 창세기 9:26에 나타난 노아의 축복대로 인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족속이며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육을 탄 종족이다. 셈족의 특성중 하나는 그 민족이 방언의 민족이라는데 있다. 셈족 방언을 분류하면 동방 셈족어(Akadian=Babylonian and Assyrian), 북방 셈족어(Aramaic and Syriac), 서북방 셈족어(Phoenician. Ugaritic. Hebrew. Moabite), 남방 셈족어(Arabic. Minean Ethiopic) 등으로 그 어휘들과 표현력이 실로 풍부하며 현대 서구 방언들의 알파벳(Alphabet) 역시 이 셈족 방언에서 유래된 것이다³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과 言語의 混沌이 기록되었는데 순서적으로 보아서 창세기 11장의 言語혼돈과 열국 분열이 창세기 10장의 열국 분포에 앞서야 할 일이다. 人種이 번창하고 온 땅에 口音이 하나이니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 동리와 탑을 만들어 하늘에 닿아 인간의 분산을 막으려 한 것이다. 그 방법으로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함으로 분산을 피하려 했는데 이것이 人僞의인 공작임을 성경에 들어난다. 11:3의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우리를 위하여 동리와 탑을 건설하자……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우리가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등이 곧 그것인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恣行恣知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惡을 위한 단결을 파괴하셨는데 그 方法은 그들의 方言을 혼돈케 하신 것이다. 이 바벨탑에 대한 기사도 천지 창조나 호수 기사와 같이 비평의 對象이 되어 왔으며 근거없는 전설로 취급하는 不信仰의 學者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현대에 발달된 과학

34) William F. Albright, The Arch-aecology of Palestine pp. 193~195

특히 古考學으로 창세기 11:2의 바벨탑을 쌓았던 지방인 신알의 위치가 거이 확실하여 졌다. 창세기 10:10에 언급된 신알 평지의 한 지방으로 볼 수 있는 에렉은 현대 古考學에서 발굴하여 4000 B.C. 以前 인류 문명의 자취를 찾은 우룩(Uruk)임이 확증되었다³⁵⁾. 이 Uruk 근처에서 오랜 옛날에 만든 것으로 생각되는 탑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이 탑들의 명칭이 바벨론 語로는 지구라트(Ziggurat)이다. 지구라트의 꼭대기에 신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아랍들이 단순히 인간의 거주를 위한 것도 아니요, 전쟁을 위한 요새 要塞도 아니라 종교적인 건조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학자가 적지 않다.

창세기 11:1에 方言의 혼돈이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본래 인간의 言語가 하나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사과 에카트 우데바림 아카딤」은 한 입술 한 말들이란 말인데 言語의 單一性을 증거한다. 인간이 본래 노아의 한 식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면 한 言語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타당한 이치일 것이다. 言語의 혼돈전에 노아의 가족이나 그 후손들이 사용한 언어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 될 것이다. 학자들 중에는 인류의 發祥地인 메소포타미야 지방의 古代語도 셈족 方言에 屬하는 것은 아카어이며 아카語의 前身이 수마리안 方言이니 言語 혼돈 이전에 使用된 言語도 그러한 종류의 方言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言語 혼돈 전의 方言을 정확하게 알아 내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요긴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본래 인간의 言語가 하나이었다가 혼돈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일이다. 現代 語學者들 중에서도 본래 인류의 言語가 하나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A. T. Robertsom은 Alfredo Trombetti의 저서 The Unity of the Origion of Language를 인용하면서 원시 방언의 單一性을 지금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ax Mueller 역시 Science of Language란 저서를 통하여 原始 方言의 單一性을 말하였다.

35) R. K. Harrison, A. History of Old Testament Time p. -27.

히브리 사람들의 社會 生活

—創世記를 中心하여—

〈목 차〉

- I. 社會 一員으로서의 人間
- II. 社會의 怪異한 事件들

I. 社會 一員으로서의 人間

創世記 1章의 創造기사에 나타난 “사람”(adam)이란 말은 集合名詞로 使用 되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adam)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창 1:27)”고 하는 성경 말씀에 잘 밝혀져 있다. 特別히, 히브리語에 依하면, “사람”이라고 번역된 “아담”(adam)이란 말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뜻을 內包하고 있다.

첫째는, 一般名詞로서 “사람”이란 뜻인데, 마치 獨逸語의 Mensch와 같은 뜻이다. 둘째는, 集合名詞로서 “人類”(Menschheit)를 뜻하며 셋째는, 冠詞를 가진 固有名詞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 “아담”을 뜻한다¹⁾.

이와 같이 사람(adam)이란 말이 創世記에 무려 54회나 나오는데 그 가운데 21회는 集合名詞의 뜻으로서 人類를 가르키고 있는 것처럼 “나무”(etch)란 말도 역시, “한 그루의 나무”(2:9, 3:22~24, 18:4~8)를 뜻하기도 하며, 集合名詞로서, “나무들”(1:11·12·29, 2:16, 3:1·2·8)을 가르키기도 한다. 이 밖에도 普通名詞이면서 集合名詞로 使用되는 말들이 있는데 “사람”(ish 32:6, 33:1), “영혼”, “개인”, “개인들”로 번역되는 말(nephesh, 14:21,

1) 이하 창세기의 성구는 책명없이 기록한다.
2) E. Lnsier, “Adam in Genesis 1:1~4:24”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X V III, April, 1956, 137-38.